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인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나가자**  
(군중정치사업제강)

지금 온 나라 천만군민은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민족적자부심을 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와 같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여 우리 조국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하기에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노도쳐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힘찬 진군을 한사코 가로막아 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군사적위협과 경제붕쇄로서는 도저히 우리 공화국을 굴복 시킬수없게 된 적들은 어리석게도 《대조선붕괴전략》이라는것을 수정완성하고 우리 제도를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키기 위한 심리모략전에 총력을 집중하고있습니다.

최근 적들은 《북의 정치제도를 무너뜨리자면 군사적압살과 경제붕쇄의 외부적 자극과 함께 내부와해를 위한 심리전이 배합되어야 한다. 현대전은 심리전이며 이것이야말로 방대한 군사병력을 대신할수 있는 리상적인 제4종의 새로운 전쟁방식이다.》고 떠들어대면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반공화국모략단체들, 악질적인 월남도주자단체들을 부추겨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우리 공민들에 대한 《집단유인랍치사건》 등 특대형인권유린범죄행위까지 비렬하게 감행해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들의 심리모략책동의 목적은 우리 혁명의 수뇌부의 존엄과 권위를 헐뜯고 우리 제도의 영상에 먹칠하여 우리를 정치적으로 고립압박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나가는 제놈들의 《대조선붕괴전략》을 국제적으로 합리화하려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군사적인 선제공격으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자는데 있습니다.

자본주의사상과 부르쵸아생활방식을 주입시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전략이 지난 시기에는 침략의 길잡이였지만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으로 대두하였으며 무서운 악성종양과도 같은 이것은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

하기에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반동적인 자본주의사상과 퇴폐적인 부르쵸아 생활문화를 혁명적인 사상공세와 혁명독재의 장검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는 심각한 계급투쟁입니다.

지난 시기 우리 공화국 법기관들에서는 신념이 떨떨하고 각성되지못한 일부 사람들속에서 나타났던 불순록화물을 시청, 류포시키는 범죄, 마약사용 및 성불량범죄, 강력범죄행위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려는 적들을 도와주는 리적행위, 반국가범죄행위로 락인하고 그와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포고도 발표하였으며 사상적으로 변질타락한 몇몇안되는 중범죄자들에게는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심리모략책동은 보다 강화되고있고 이에 편승한 내부의 불순적대분자들의 발악적인 책동도 기승을 부리고있지만 아직도 일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높은 정치적각성과 계급적자각이 부족한데로부터 나라의 정치적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해치는 갖은 범죄행위들에 쉽게 말려들고있습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사상적으로 변질된 한줌도 안되는 극소수의 불순이색분자들이 당과 국가의 거둬되는 교양과 관대정책에 양봉음위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불순록화물을 몰래 보고 류포시키고있는것이며 성불량행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감행하여 사회의 정치적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있는것입니다.

하기에 최근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들의 심각성으로부터 국가보위성특별군사재판소에서는 사회의 안정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며 날뛰던 인간쓰레기들을 선군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였습니다.

이번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철추를 받은 범죄자들은 하나와 같이 인간의 초보적인 량심마저 다 쫓어버리고 사상적으로 변질될대로 변질되어 단 세상을 꿈꾸면서 적들이 바라는대로 추잡하고 변태적인 범죄행위만을 추구한 반당, 반혁명, 반국가적범죄자들입니다.

평안북도 어느 군의 어느 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하였던 안모놈은 지난 시기 군사복무를 하면서 불순록화물들을 시청, 류포한 범죄로 과오제대되었으나 개준하기 위해 노력할 대신 공화국법에 전면도전하여 2015년 7월경부터 로골적으로 성록화물과 괴뢰영화들을 구입하여 시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높은 불순록화물의 시청, 류포를 막기 위한 법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자 교묘하게도 20여명의 사람들로 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시청하겠다는 담보서까지 받고 10여편의 성록화물들을 류포시키였으며 2016년 1월부터는 순진한 처녀들에게 일생을 같이 하자는 달콤한 말로 구슬리거나 좋은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유혹하여 끌고가서는 성록화물들에서 성관계장면만을 골라 시청시키면서 추잡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불량행위를 감행 하였습니다.

함경남도 어느 군에서 무직자로 생활하던 박모놈은 괴뢰성록화물과 색정도서 등을 꺼리낌없이 시청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장면을 재현하여 나어린 처녀들을 포함한 40여명의 녀성들의 정조를 무참히 유린하는 짐승도 무색케 하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성불량범죄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높은 2012년 7월부터 수십차에 걸쳐 제놈의 딸과 같은 19살의 나어린 처녀를 돈과 물건으로 유혹하여 제놈의 집으로 끌고가 마약을 사용하면서 불순성록화물의 장면대로 성관계를 재현하다못해 성흥분제까지 써가며 변태적인 성불량행위를 감행 하였습니다.

평안북도 어느 군의 어느 한 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하던 강모놈은 지난 시기 도박행위와 마약밀매행위로 2차례나 법적처벌을 받았으나 개준할 대신에 공화국법에 도전하여 《성관계는 인간의 본능이다.》고 로골적으로 쫓겨대면서 2013년 3월 공모자인 리모놈과 함께 16살 나어린 처녀를 제놈의 집에 끌고가 마약을 사용하면서 교대적으로 성폭행하는 범죄를 감행하였으며

이미전부터 치정관계를 가지고있던 김모녀성의 집을 찾아가 공모자인 리모놈에게 성관계방법을 배워준다고 하면서 리모놈이 중학교를 갓 졸업한 그 녀성의 나어린 딸을 벌거벗기고 추잡한 짓을 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그들이 보는 앞에서 김모녀성과 마약을 사용하면서 변태적인 성관계를 가지였으며 그것도 성차지않아 김모녀

성의 딸에게 야수같이 달려들어 성폭행하는 추악한 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높은 너절하고 추잡한 방법으로 수십차에 걸쳐 김모녀성의 모녀만이 아니라 나 어린 처녀들과 유부녀를 비롯한 수십여명의 여성들을 돈과 물건으로 유혹하거나 강제로 끌어들이어 변태적인 방법으로 룬간함으로써 여성들을 정신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타락시키는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함경남도 어느 군에서 무직자로 있던 박모놈은 지난 시기 돈에 환장한 나머지 사람들의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독소인 마약을 제조하고 사용, 밀매하거나 도박행위 등 온갖 범죄행위들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건전한 생활양식을 무참히 란도질하였습니다.

놈은 《마약을 제조하는 길만이 살아 갈수 있다.》고 쫓치면서 2010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기간에 7차에 걸쳐 자기집과 여러 장소들에서 마약제조물질을 구입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마약을 제조하여 2,400여US\$를 사취하는 범죄를 감행하였으며 이미전에 마약사용과 도박행위범죄로하여 법적처벌을 받았으나 개준할 대신에 여러 장소들에서 마약중독자들과 100여차에 걸쳐 16g의 마약을 사용하는 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함경남도 어느 군에서 무직자였던 박모놈 역시 돈에 환장이 된 년놈들과 공모하여 10여차에 걸쳐 5kg의 마약을 제조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으며 2009년 3월부터 2016년 2월 기간 40여차에 걸쳐 2.8kg의 마약을 10여명에게 밀매하였을뿐아니라 2008년 8월부터 2016년 2월 기간에 10여명의 불순한자들과 수백g의 마약을 2,000여차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평안남도 어느 군에서 부양으로 살고있던 오모년은 성록화물을 구입, 류포한 범죄로 법기관에 단속되어 법적처리를 받았지만 자기의 죄과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개준할 대신에 성록화물을 비롯한 불순록화물들을 구입하여 시청하는 반국가범죄행위를 서슴치않고 감행하였으며 2009년 11월부터 2016년 2월 기간에 4차에 걸쳐 자기집과 여러장소들에서 2kg의 마약을 제조하고 400여차 사용하는 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지어 년은 《마약을 제조하는 길만이 뭉치돈을 벌수있는 길이다.》고 공공연히 지껄이면서 각성된 군중과 법일군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생산한 마약을 20명의 대상들에게 160여차 밀매하여 수천만원의 자금을 사취하였으며 사람들을 정신육체적으로 타락시키는 반당반국가범죄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습니다.

평안남도 어느 군에서 부양으로 살고있던 지모년 역시 성록화물을 시청, 류포시키면서 불건전한자들과 변태적인 성불량행위를 감행하였을뿐아니라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에 2.6kg의 마약을 제조하여 10여명의 불건전한자들과 380여차에 걸쳐 마약을 사용하고 밀매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년놈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돈만 있으면 살아갈수있다.》는 악육강식, 황금만능주위를 떠벌이며 각종 폭행과 위협공갈로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시킨것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은 《여우》, 《승냥이》라는 별호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몸서리친다는 심중한 반영들이 제기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줌도 안되는 인간이기를 그만둔 패륜아, 천하불망나니들의 불법무도하고 무지몽매한 변태적인 범죄행위로 하여 나 어린 처녀들을 비롯한 수십명의 여성들이 육체적으로뿐아니라 정신도덕적불구자가 되어 치욕속에서 몸부림치고있으며 사

회에 마약제조와 밀매, 도박과 강력범죄 등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조장하고있습니다.

신의주시 역전동에서 살고있는 부양 리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압강동 부양 김모를 비롯한 여러 대상들에게 중국돈 65원을 주고 마약을 밀매받거나 부당한 성관계를 가지었으며 남자대상들로부터 받은 마약 3.65g을 김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공모하여 27차에 걸쳐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을뿐아니라 이 기간 13차에 걸쳐 동하동 부양 김모의 집에서 해방동 무직자 장모외 여러남자들을 대상으로 매음행위를 하거나 매음거간행위를 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신의주시 역전동에서 살고있는 부양 리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돈벌이를 목적으로 피현군과 염주군의 무직자들을 자택에 데려다 무단숙박시키면서 그들에게 군부대 로동자인 최모 등 10명의 남자들을 소개해주어 자기 집과 민포동 부양 리모의 집에서 12차에 걸쳐 매음행위를 조장시켰으며 련상 2동 부양 김모로부터 중국돈 300원을 주고 마약 2g을 넘겨받아 여러 대상들에게 밀매하고 흡입기구까지 보장해주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처리되었습니다.

신의주건재공장 로동자 박모는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중순경까지의 기간 4차에 걸쳐 화교인 조모를 비롯한 5명의 대상들과 공모하여 950g정도의 마약을 중국에 밀수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법기관에 거짓자수하였으며 개준하지 못하고 2016년 3월 21일 마약 1.2kg을 밀매하는 행위를 감행하다 적발처리되었습니다.

신의주모방직공장 로동자 최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기간 신의주 방직공장 로동자 장모에게 중국돈 2천여원을 주고 성불량행위를 하는 과정에 썩어빠진 자본주의성록화물에서 나오는 말세적인 방법들을 습득하여 성록화물을 재현한 성불량행위를 감행하면서 장모를 비롯한 5명의 여성들과 30여차에 걸쳐 11g의 마약을 공모사용하고 자기의 성행위를 손전화기로 4차에 걸쳐 동영상촬영제작하여 공모시청다가 적발처리되었습니다.

신의주 체육기구공장 로동자 김모는 2009년 8월경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간 본부동 부양 박모를 비롯한 여러대상들과 50여차에 걸쳐 마약을 공모사용하였으며 박모의 기억기에 입력되어있는 적대국 성록화물 1편을 넘겨받아 시청하고 군사복무중에 있는 백모에게서 괴뢰TV극 2편과 괴뢰불순출판물 50여편이 입력된 TF카드를 넘겨받아 신의주압록강종합식료공장 로동자 오모, 박모와 21차에 걸쳐 시청류포시킨 범죄로 법적처벌을 받았으나 개준하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박모와 비법 부부생활을 하면서 이미 시청하였던 적대국성록화물을 재현하여 자기들의 변태적인 성불량행위장면들을 손전화기로 촬영제작하여 혼자서 또는 공모시청하다가 적발처리되었습니다.

신의주시 락청 2동에서 살던 김모는 정치사상생활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돌아치면서 2009년 2월경 남중동 부양 리모로부터 미국과 괴뢰영화라는것을 알면서도 CD알판을 밀매받아 시청류포시키고 마약밀매행위로 로동교화 10년형을 받고 병보 석방된후 자택에서 치료를 받을 대신 개준하지 못하고 교화중 병보석방자, 교화출소자, 로동단련대 출소자들을 찾아다니며 성록화물과 반공괴뢰영화들을 시청류포시키는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김모는 우리의 내적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책동하고있던 중국인 화교 왕모년과 비법중국손전화련계를 하면서 4.5kg의 마약을 밀매하고 년으로부터 끌어

들인 적대국 성폭화물들과 괴뢰영화들을 시청류포시키다가 재범관계로 법기관에 단속되어 취급받던중 검열성원의 목을 칼로 베고 도주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자기의 행위가 우리 당정책과 공화국법에 심히 도전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우리의 정치사상적진지를 와해파괴하려는 암해행위로서 적들의 책동을 도와주는 리적행위, 역적행위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상적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신의주시 개혁동에 사는 리모와 수차에 걸쳐 마약사용과 성폭화물을 시청하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가진것을 비롯하여 자기 조국을 배반하고 중국으로 도주하려하거나 여러명의 녀성들과 추잡한 성생활을 일삼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다 적발되어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의주시 민포동 부양 문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기간 제약자 재공급소 노동자 박모가 기업소창고에서 비법적으로 빼낸 마약제조물질을 그와 공모하여 1t을 넘겨받아 10여차에 걸쳐 흥남제약공장에서 일하는 박모외 3명에게 밀매주고 박모, 한모와 공모하여 마약 160여g을 밀매하거나 8차에 걸쳐 공모사용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처리되었습니다.

신의주시 친선 2동에서 살고있는 김모는 2016년 1월 13일 지난 시기 마약밀매 과정에 외상으로 소비한 물건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폐장사를 하는 신의주시 동중동 부양 김모의 집에서 돈을 꾸려다가 그가 응하지 않자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빼앗아 가질 목적으로 김모의 집부엌에 있던 저가락으로 김모의 가슴부위를 여러번 찌르다 못해 가스곤로로 김모의 머리를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후 그의 몸에 있던 현금 15만원과 중국돈 994원을 강도해가지고 도주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다 적발처리되었습니다.

신의주시 동상동 무직자 리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기간 2차에 걸쳐 가짜돈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에게 자기를 믿게 한 다음 사람이 없는곳에 유인하여 손칼을 뽑아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손전화기 2대를 강도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많은 개인재산을 속여 가진 범죄를 감행하다 적발처리되었습니다.

신의주시 선상동 무직자 조모는 자기의 아버지가 2015년 12월3일 가정불화를 일으키면서 소란을 피우자 가정이 편안하려면 아버지를 죽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집부엌에 있던 절구공이로 잠을 자고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후 송한 과수농장 논밭에 내다버리였으며 어머니와 공모하여 절구공이를 비롯한 살인증거물들을 몰래 은닉시키는 범죄를 감행하다 적발처리되었습니다.

신의주시 평화동 부양 김모는 지난 기간 마약밀매사용행위로 로동교양처벌 4차, 도박행위로 로동교양처벌을 받은 자로서 개준하지 못하고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또다시 남편 방모와 개혁경로동 노동자 독고모, 남송동 부양 김모를 비롯한 여러명과 공모하여 수십g의 마약을 밀매하고 수십차에 걸쳐 사용하다가 적발처리되었으며

신의주시 하단리 무직자 김모는 지난 기간 특히 대량의 마약을 밀매한 행위를 법기관에 찾아와 자백하고 관대하게 용서를 받았으나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또다시 마약밀매를 하다가 단속처리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의 이모저모에서 제도의 안전을 해치는 적대적범죄행위들이 나타나게 된 근본원인은 우선 신념이 떨떨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당적원칙, 계급적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인맥, 물맥관계에 얽혀 제살궁리만한데로부터 법

적투쟁의 도수를 높이지못한데 있습니다..

평안남도 어느 군에서 부양으로 살고있던 오모년과 지모년은 성록화물을 구입, 류포한 범죄와 마약밀매범죄로 여러번 단속되었지만 해당 단속일군들에게 돈과 물건을 찢러주고 죄과를 무마시키었으며 신고자들을 알아내서는 폭행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갈하여 좋지못한 사회적여론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적으로 처리된 년놈들은 대부분이 범죄전과자들로서 이미전에 마땅히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였으나 해당 법기관들에서는 형벌을 약화시켜 사회적정치적안전을 해치는 범죄자들이 또다시 머리를 쳐들게 하였습니다.

원인은 다음으로 일부 기관, 기업소책임일군들속에서 기업소운영과 사회적과제수행을 구실로 종업원들과 주민들에게 《외화벌이》, 《더벌이》 등의 과제를 주면서 로동행정규률을 심히 문란시킴으로써 범죄자들이 범죄를 감행할수있는 공간들을 조성시킨데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기관들에서는 종업원들과 주민들을 《지원자금조성》의 명목밑에 조직사상생활에서 류리시키고 장악통제를 전혀 하지않고있는데로부터 그들속에서는 끼리끼리 밀려다니며 술판, 먹자판을 벌리고 패싸움을 비롯한 강력범죄행위를 일삼고있습니다.

지어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성록화물과 괴뢰영화를 시청, 류포시키고있으며 마약을 사용하거나 밀매하는 범죄행위들에 쉽게 말려들고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년놈들의 범죄동기를 보아도 해당 기관의 일부 일군들의 비호, 묵인밑에 기업소에 적만 둔 범죄자들이 기업소운영자금을 비롯한 사회적과제수행의 명목밑에 제멋대로 돌아치면서 거간과 협잡 등 온갖 위법행위들을 조장시키었으며 나중에는 사회적정치적안전을 침해하는 적대행위로까지 이어지게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속에서 사회적안전을 침해하는 적대행위에 대해 알고있으면서도 호기심과 돈벌이를 비롯한 생활상에 있을수있는 레사로운 문제로 여기면서 주위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요소들에 대하여 남의 일인것처럼, 자기 집과 상관이 없는것처럼 매우 무관심하게 대한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됩니다.

이번에 자기의 범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관대히 용서받은 함경남도의 어느 한 녀성은 《 2013년에 진행된 공개투쟁모임에 참가하여 역적놈들의 말로를 직접 목격하면서 놈들의 죄행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던 내가 오늘 그와 같은 놈들과 한짝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자신이 민망스러웠고 자식들과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옆집에서 살고있는 역적놈이 마약을 쓰고 밀매하는 나쁜놈이라는것을 알면서도 그가 돈을 물쓰듯하며 풍청거린다고 하여 그것을 오히려 부러워하며 세대주에게 옆집세대주처럼 돈을 벌어오라고 행패질만 하였다. 그러다가 식량을 구하고 자식들의 학용품을 해결하자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세우던나머지 마약밀매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국가적인 통제품인것으로 하여 단속되면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무사치못하다는것을 알고있었기에 한번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어리석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돈에 대한 욕망이 높아지고 한번만, 한번만 하는것이 나중에는 마약사용자까지 되었고 역적놈을 비롯한 불건전한자들의 룡락물로 굴러떨어져 정신도덕적불구자로 전락되었다.

이미전에 내가 마약범죄자놈을 제때에 신고하였더라면 나 자신은 물론 수많은 녀성들을 사전에 건져낼수있었는데 정말 분하고 창피하기 그지없다. 거간, 협잡, 마약밀매로 살아가는 역적놈들에게 나혼자만 받는 수치만을 생각하였지 놈들이 술한

여성들을 못쓰게 만들고 사회에 커다란 불안을 조성시키는것은 상관하지도 않았다. 정말 마약에 빠져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량심도 의리도 모르고 가정도 나라도 배반하는 인간추물로 되어버리게 된다는것이 오늘 내가 찾는 교훈이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교훈을 남겼습니까.

이렇게 우리 당의 사상과 숨결로 살지 못하면 백두산대국의 혈통을 이은 조선 사람의 본태를 잃게되고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꺼리낌없이 배신하게 되며

조직과 집단, 가족과 동지들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고 저 하나의 안락과 탐욕, 금주색에 빠져들게 되면 인간추물이 되고 나중에는 적들과 한짝이 되는 반당반혁명, 반국가범죄자로 굴러떨어진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이 퍼뜨리는 악성혹과 같은 이색적이고 퇴폐적인 사상문화는 우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의 모든 세포들을 괴사, 붕괴시켜 나중에는 당의 령도도 거세하는 엄중한 사태를 빚어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적들의 썩어빠진 부르췌아사상문화를 짓밟개버리고 온 사회에 오직 우리의 미, 우리의 멋과 아름답고 고상하고 건전한 생활미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내부를 와해붕괴시켜보려는 적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투철한 반제반미의식과 대적관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좀먹고 파괴하려는 적들의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 화원을 제손으로, 자기의 손끝으로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발악할수록 우리는 자주, 선군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따라 더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는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며 우리의 앞길을 막아보려는 적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질수록 백두산천출명장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의지는 더욱더 확고부동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군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불변의 혁명신념을 더욱 억척같이 간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시각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듯이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인민모두를 태양보다 더 뜨겁고 바다보다 더 깊은 열과 정으로 따듯이 품어주고 내세워주시는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시며 인덕정치의 최고체현자이십니다.

언제나 천만군민 한사람한사람 모두를 자신의 살불이로 여기시며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이 있을세라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또다시 엄중한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1%의 좋은 점, 양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범죄를 백지화해주시고 재생의 길을 걷도록 천금주고도 살수 없는 뜨거운 정치적민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모두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2013년 10월 사회의 정치적안전을 침해한 엄중한 범죄로 하여 극형을 받고 처형되어야 할 수백여명의 사람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총속에 과거와 결별하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한 화폭들을 어제런듯이 뜨겁게 되새겨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나라앞에 인민앞에 씻을수 없는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던 수십여명의 인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배려에 의하여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나게 되는 인간사랑의 화폭들이 또다시 펼쳐져 만사람을 감동시키고 온 나라에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중범죄를 저지른것으로 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고 걱정의 눈물만을 흘리던 평안북도의 어느 한 청년은 《나는 지난시기 마약을 사용하고 성륙화물을 시청하며 성불량행위를 감행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관대히 용서받은 사람이다. 사실 내가 범한 범죄행위는 법적으로 따져 계산하면 열백번 처형당하고도 남을 범죄였다. 이번 공개투쟁모임에서 범죄자들의 말로를 목격하면서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두다리가 떨리고 온 몸이 가다들어 겨우 서서 나에게 차례질 형벌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의 자그마한 1%의 양심을 믿으시고 재생의 길을 걷도록 하여 주시었다.정말이지 심장이 터지는것만 같았고 얼굴이 뜨거워 머리를 들수가 없었고 쥐구멍에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였다.

그러나 당세포위원장동무가 찾아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배려를 순간도 잊지 말고 앞으로 일을 잘해나가자고 고무해주었고 세포당원들이 힘과 용기를 주며 이끌어줄때 저는 커다란 죄책감과 함께 죽어도 갚지 못할 이 사랑, 이 은혜에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한단 말인가. 생명이 꺼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드는 오직 한길에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라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만을 따르고 받들면 사회주의 강국은 머지않아 반드시 일떠서게 된다는 신념을 뼈속깊이 간직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짝 들어찬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안전을 해치려는 사소한 범죄행위와 그 사소한 요소에 대하여서도 절대로 용서치말고 법적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며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적들은 불순록화물들을 비롯한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불순출판선전물들을 대량적으로 들이밀어 우리 사람들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과 우리 제도에 대한 《회의심》을 조성시키며 우리의 법기관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단속, 처리되게 하여 우리 내부에서 《제도불만자》들이 늘어나게 하려고 획책하고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의 정치적안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과의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기 위하여 높은 계급의식과 투철한 대적관념을 지니고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단위, 모든 부문들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적통제를 부단히 강화하는것과 함께 성폭화물을 보거나 류포시키며 성불량행위를 하는 자들, 종교와 미신행위를 하는 자들과 마약을 밀수밀매하며 사용하는 자들을 비롯하여 사회의정치적안전을 해치는 온갖 위험한 범죄행위들을 주타격대상으로 정하고 사소한 양보나 동요가 없이 무자비하게 짓뭇개버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인안은 우리모두가 스스로 주인되어 지켜나가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 자각을 가지는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는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안전을 노리는 생쥐와 같은 불순분자들과 돈에 환장이 된 이색분자들이 범죄의 기회만을 노리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투쟁이 단순히 일부 법기관이나 법일군들만이 벌리는 사업으로만 여길것이 아니라 공화국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하여야 할 사업, 제도의 안전은 자기자신이 주인이 되어 지키고 투쟁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자기 가정과 마을, 일터를 비롯하여 주위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높은 당적, 계급적견지에서 예리하게 보고 제때에 신고하여 자기 관내에서 절대로 온갖 범죄행위들이 절대로 나타나지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새세대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품을 넣어 절대로 위법행위들에 말려들지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녀교양을 잘못하여 자식을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평안남도의 어느 한 녀성은 《불순폭화물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독성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똑똑히 알게 되었다.

나는 아들이 소학교, 중학교다니던 시기에는 공부하는 정형도 알아보면서 관심을 돌리였지만 그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이젠 어른이 됐는데, 잔소리하는것으로만 여기면서 가정교양에 관심을 돌리지못하였다.

그저 아버지없는 아들을 남보다 잘 내세워보겠다는 눈먼 사랑에 빠져 그가 밤새껏 불순폭화물들을 보고 술추렴을 하는것을 알면서도 따금하게 충고해주지않았다.

도리어 아들이 피곤하다고 직장에 나가지않겠다고 작업반에 알려달라고 하면 몸이 불편해서 나갈것같지못하다는 거짓전화까지 해주었다.

이런 무관심성과 눈먼 사랑이 흐르는속에 아들은 처녀들을 끌어들이었으며 마약을 사용하면서 온갖 못된짓을 다하는 인간추물로 변하였다.

집재산을 팔아먹는것도 성차지않아 남의 집에서 도적질한 물건으로 거간, 협잡행위를 일삼았고 패싸움까지 하여 언제한번 마음편안한 날이 없었다.

처음에는 집안망신이 두려워 혼자서 속을 썩이다가 너무도 분하여 울분을 터뜨리면 아들이라는 자식은 <추세에 맞지 않게 산다>, <고리타분하다>, <어머니 없이도 산다>고 샅대질하며 집을 뛰쳐나갔다가 술에 흠뻑 취해 들어와서는 나에게까지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는 아들교양을 바로하지 못하여 변태적이며 타락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게 되었다. 이번에 당의 은정깊은 조치가 없었더라면 아들의 운명은 영영 구원되지 못하였을것이였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현상을 통하여 자녀교양, 가정교양은 사회의 한 세포인 가정을 유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집중되고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자녀들에 대한 가정교양을 강화하고 사회교양과 학교교양을 밀접히 결부시켜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의 정치적인 안전을 침해한 모든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자수, 자백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돌부처가 아닌 이상 사업과 생활과정에 과오를 범할수도 있고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을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솔직하게 용서를 비는 자식을 탓하는 어머니가 없듯이 우리 공화국의 자수정책은 어제든 오늘도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 당은 아무리 큰 역적죄를 지었다해도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반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죄를 문제시하지 않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된 길을 걸어 나아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각성되지 못한 사람들속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순 록화물을 한번 시청하고 마약을 한두번 사용했다고 하여 사상적으로 변질되었는가》, 《마약과 불순록화물을 몇개 밀수밀매한다고 하여 큰일이 나겠는가》 하고 레사 룩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범죄행위와 요소들에 대하여 솔직히 자수하지 않거나 주저하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형법 제60조에는 성록화물을 반입,제작,복사,보관,류포, 시청하였거나 그러한 행위를 재현하면서 성불량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제도를 와해전복하려는 적들의 책동에 가담한 반국가범죄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제207조와 제208조에는 비법적인 마약사용, 마약밀수, 거래행위들을 반당적, 반국가적, 비사회주의적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것만큼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제도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는 그가 누구이건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공화국형법대로 처리된다는 것을 똑바로 명심하고 지난 시기 범한 사소한 위법행위라도 제때에 자수하여 재생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광폭정치, 인덕정치, 사랑과 믿음의 정치에 대한 신뢰심에 자그마한 실금도 가는 일이 없도록 자수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거나 따돌리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착되어 맡은 일을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업소의 일군은 불순록화물들을 비법적으로 밀매한 범죄를 범하였지만 국가적조치로 관대히 용서받은 자기 사업소의 로동자 한모녀성이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서 생활하는것을 알고는 그를 찾아가 인생의 새 출발을 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내세워주었습니다.

당시 한모녀성은 자기가 범한 범죄로 하여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받는것은 물론 자식들에게서까지 배척을 받아 항상 우울과 불안속에서 생활하였으며 나중에는 인가와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들어가 홀로 생활하고있었습니다.

사업소의 일군은 당의 의도에 맞게 상처입은 자식을 더 극성이 대해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녀성의 1%의 량심을 믿고 추운 겨울 60여리나 넘는 험한 산길을

